

## “팔복 그 이후: 은혜가 다스리는 삶”

### 요한복음 1장 15-17절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팔복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우리 모두에게 ‘복’으로 고백될 뿐 아니라, 그 복으로 인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아래에서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복’이라기보다는 ‘고난’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세례요한의 기록들을 보면서 저에게 떠오른 것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의 삶이 복되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세례 요한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겸손의 은혜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인정함으로 시기심을 극복하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참 멋진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님을 열망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은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으며, 인정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진 누군가를 보면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가 다스리는 삶’의 특징은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는 분량이 커질수록 명확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가 한 말입니다.

**“진정한 부흥이란 한 사람의 가슴 속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다”**

## 이슬 같은 은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하는 ‘이슬과 같은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성경의 무대가 되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적 상황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만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토양이라 바로 흘러 보내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오지 않는 한여름에도 식물은 자랍니다. 밤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에서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슬은 절대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농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이 밤새 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비가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은혜가 늘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답답해하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과 같은 은혜가 촘촘하게 젖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곧 죽을 것 같았던 순간에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세요.

### 요한복음 1장 15절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요한은 그 분이 먼저 계셨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보니 그 분이 이미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은혜가 어느 날 보니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에 대한 설교를 마치며,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8가지 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복을 소유하고 사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는데, 그렇게 복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보니 우리에게 이슬 같은 은혜가 흠뻑 젖어 있습니다.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은혜일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고 그 다스림의 흔적이 이슬처럼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도 그런 느낌입니다.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 우리들이 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합니다.

## 2.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날 불현 듯 깨닫게 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한 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시다.”

다른 성경에는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시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하는

NIV 영어 성경에서는 “one blessing after another”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한번 딱 주어졌다가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닷가에 나가 서 보시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 하나가 밀려와서 해변을 때리고 나면 그 뒤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파도는 계속해서 해변으로 향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에 종말이 올 때까지 해변가에 파도처럼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는 반복성이 있는 것이고 확장성이 있는 지속적인 그런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은혜와 충만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찾고 기다렸는데, 그 분이 자신의 인생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단지 자신은 그 분을 증거 할 뿐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미 그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지금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는데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야생의 옷을 입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 12, 11자 신문에 평생을 히말라야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노 선교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마치 세레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강원희 선교사(77세) 30년 가까이 오지로만 다녔던 의료 선교사.  
연세대 의대를 나와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헌신하겠노라고. . .  
그가 네팔로 선교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라고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팔에서 3년 반, 방글라데시에서 4년 스리랑카에서 4년, 다시 네팔에서 4년, 에티오피아에서 7년, 그리고 올해 초 네팔로 떠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평생을 늙어 갔습니다.  
그분을 취재한 기자는 그에게서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진에 비친 선교사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황량한 히말라야에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 그의 모습에서 세레 요한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한 번 사진을 같이 볼까요?)

팔복 말씀을 나누는 중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이죠.

“은혜가 다스리는 삶”은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세레 요한도 강원희 선교사님도 세상이 생각하는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 가운데서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복된 삶, 은혜로운 삶을 산 것이죠.

요즘 개봉한 영화중에 ‘테넷(TENET)’이 있습니다.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주연을 맡은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 아카데미 주연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데이비드는 미식축구 선수 출신입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여러 번 오디션을 봤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주연이 된 사람이죠.

유명 배우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노력이 성공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하다.”(2020 9월 1일 조선일보)

세 번씩이나 성령 체험을 하고 신앙을 고백한 덴젤 워싱턴과 그 가족들의 삶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삶, 가치 있는 삶이 의미 있는 것이죠. 성공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은혜로만 해석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누군가 가만히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을 때,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아니 이슬 같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롭다!’는 표현입니다. 진정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은혜롭군요!**”

은혜 안에 살기. . .

**본문 16-17절을 보세요.**

말씀을 상상하면서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9주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배워 왔습니다. 세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이고, 이기심을 만족시켜야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되는 가운데 고백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율법과 규범이 아닌,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위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17절**

-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6절을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6. *From the fullness of his grace we have all received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fullness’ 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 충만함 중에 거하니 은혜를 받고 또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임한 ‘충만함’이 은혜를 고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과 비유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집에서는 마당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 물통에 채워 넣곤 했다.  
한 양동이가 불평을 늘어놨다.  
"아무리 물을 퍼 담으면 뭐 해. 열 걸음도 못 가 물통에 부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자 다른 양동이가 입을 열었다.  
"참 이상하다. 나는 열 걸음만 옮기면 다시 가득 채워지는데..."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짧은 예화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한쪽은 탄식과 불평만 늘어놓고 삽니다. 왜냐하면 손에 가득 쥐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어느새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채우라”고 요구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베플라”고 하지만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이죠.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인도 방갈로의 한 신학교에서 강연했을 때였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난 후 한 수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가난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어서 그들을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칭중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이 나올지 숨을 죽인 채 쳐다보았습니다.  
그 때,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사람들을 버릇없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력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내야 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대기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네 시간 일하니 두 시간 동안 햇빛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테레사의 대답이 떨어지자 질문을 던진 수녀는 물론이고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는 우리야말로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남에게 베푸는 것은 늘 아까워 하나님이 버릇없이 만든다고, 그들에게는 좀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임하는 은혜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도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은 모세에게서 주어진 “금지”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예수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위대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인 ‘보함’은 자기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다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청년이었을 때에 나는 친구의 집에서 그 친구와 함께 보낸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집에 처음 갔었고, 그 친구는 나에게 응접실 건너편에 있는 방은 출입금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의 말을 따라서 나는 그 방에는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내가 잠이 깬는데 그때 출입금지 된 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그 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 한 어린 소년이 누워 있었다. 그 소년은 정신병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소년이었다. 그 소년이 누운 침대

앞에 친구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침대에 누워 있는 소년을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그때 흐느끼면서 정신 이상인 자기 아들에게 속삭이던 그 어머니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도 주며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있었다. 그런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이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으나 자식은 아직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일방적인 사랑의 고민을 그 어머니는 하고 있었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을 때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의 명확한 의미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도 육신이 혹사하면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피곤하다고, 육신에 병이 생겼다고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함과 지친 육신을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래 전 사모님들을 위한 영성 훈련에서 어느 테이블 멤버들이 나와 자신을 소개하면서 만화 영화 주인공인 '캔디'를 그리더니 함께 노래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러더니 한 사람이 "왜?"라고 묻자,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오래전 BTD 영성 훈련에서 어떤 사모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딸로 자라면서 늘 부모님의 모습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목회자 사모가 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2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사귀던 남자는 다행히도 일반 대학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일반 직장에 잘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신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결심과 부모님의 동의는 충분했지만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자신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엄마! 엄마는 왜 나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해?" 그러자 엄마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팔아 엄마는 한 번도 사모로 살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엄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늘 행복했단다!"

이 말 한마디가 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엄마가 불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엄마는 늘 은혜 가운데서 살았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힘들고, 고백하는 소리도 듣기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신학교는 입학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신학교가 생기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자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영광’이 아니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온갖 것들에 대한 바람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는 그 길이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아닐까요?

제가 사모 트레스 디아스를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지는 것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은혜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사모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제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쳤다면, 저에게 몸이 아파서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꿈을 꾸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그럼 큰 교회 목회를 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실패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래 전 옥한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조용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이 안타까워하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옥 목사는 병을 앓으면서 늘 병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나는 옥 목사에게 왜 그것이 선물인냐고 병을 이겨야 한다고 충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났어. 나는 병이 찾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병과 싸워서 이기라고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싸웠지.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다면 그 병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고,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면 병과 싸우는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고. . .



문제는 병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 채 병으로 죽어가는 것이고,  
문제는 낮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면서 고통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인생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삶의 길이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더군요.

“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을 생각해 보아라!”

추운 날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심정이 생각나 그 때부터 매일 철야기도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성경보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본의 삶에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노력과 고통 가운데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사명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  
혹은 우리들이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나 천지호야.”  
인기리 방영됐던 드라마의 유명 대사다. 은혜와 복수의 관계에서 최악은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 이하의 수준이다. 다음은 은혜도 원수도 안 갚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감정과 도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리고 추노의 논리이다. 은혜는 멀고 보복은 가깝다. 은혜는 힘에 부치고, 복수는 힘을  
다한다. 그것이 사람이다. 그래도 의리와 양심은 있어 보인다. 그 위는 은혜도 갚고, 원  
수도 갚는 도덕의 세계이다.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이고 소수의 영웅이나 성인이 도  
달하는 수준이다.  
마지막이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는 단계이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랬다. 그분의 핏값  
으로 산 우리는 주님의 노예이다. 도망 노비를 쫓는 추노꾼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추  
노꾼이다. 해서, 추노꾼은 이렇게 말한다.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고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고통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9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말합니다. 9.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번역은 이 대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Philips역: “not to fail to use the grace of God” )

이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는데, 그 은혜를 유익하게 선용할지언정 무익하게 해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더라도 고난에 대한 반응 선택의 몫은 여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엄청난 은혜의 유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간절하게 바랐던 마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함에 있어 실패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고백되기를 바랍니다.